0.02초 만에 전문가 진료 예약? 경찰 '해커 암표상' 일망타진

—남경시공안국 3개 '해커 암표상' 조직 적발

최근 남경시공안국은 병원 예약 시스템을 불법 침입한 3개의 '해커 암표상'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이 보유한 개별 결제계좌의 년간 거래 기록은 무려 5,000여건에 달하며 예약 소요 시간은 평균 0.02초에 불과했다.

일반 환자들은 의료전문가 진료를 예약하기 어려운 반면, 암표상들은 인터넷 플래트홈에서 공공연히 전문가 진료 대리 예약 광고를 하고 있다. 병원 예약난이라는 두드러진 민생문제에 비추어 남경시공안국은 지난 1월에 사건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반은 우선 관련 병원의 근 1년간의 4만여건의 예약 기록을 추출하여 인기 전문가의 예약 정보와 대조분석했다. 결과 여러 제3자 결제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수량의 예약 결제 정보가 발견되였는데 개별 계좌의 년간 결제 기록은 무려 5,000여건에 달하여 일반 환자의 진료 빈도를 훨씬 초과했다. 동시에 전담반은 동일한 IP 주소가 단시간에 부동한 주민등록번호로 고빈도 예약을 하거나 다수의 진료카드가 동일 결제계좌에 련결되는 등 이상 상황도 포착했다.

이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추적을 통해 남경 경찰은 조모, 예모, 여모를 우두머리로 하는 3개 범죄조직을 최종 확정지었으며 지난 5월 15일 하남, 안휘 등지에서 집중 단속 작전을 펼쳐 현재까지 22명의 범죄용의자를 체포했다.

남경 경찰측에 따르면 최초로 적발된 표적은 조모를 우두머리로 하는 범죄조직이였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 조직의 '1급 암표상'들과 련계하고 '2급 암표상'들은 진료가 급한 환자를 찾는 역할을 분담했다.

범행 용의자 종모는 용의자 조모를 찾아가 병원 예약 전용 프로그람 개발을 제안하였다. 리익의 유혹에 조모는 병원에서 예약 시스템을 개방하자마자 곧바로 신속 예약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조모는 예약을 담당하고 종모는 '2급 암표상'들과 련계하고 '2급 암표상'들은 진료가 급한 환자를 찾는 역할을 분담했다.

구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자가 미리 개인정보를 조모가 개발한 예약 프로그람에 입력하면 조모가 프로그람으로 개방 시간에 즉시 예약한 후 예약된 전문가 진료 번호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한다. 남경 경찰측의 소개에 따르면 개별적인 전문가 진료 번호는 최고로 1,000여원의 폭리로 거래되였다.

이후 또 다른 2개의 '해커 암표상' 조직도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자리선점후 암표 판매' 방식으로 수백개의 휴대전화 카드를 구매하고 예약 프로그람으로 '자리선점'을 가상 예약한 뒤 되거리하는 수법을 썼다.

남경 경찰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실제 측정 결과, 일반 환자의 온라인 예약 소요 시간(로그인부터 결제 완료까지)은 최소 1분이 걸리는 반면, '해커 암표상' 들은 자체 개발 프로그람으로 평균 0.02초 만에 예약한다. '해커 암표상'들의 예약 속도는 일반 환자에 비하면 마치 하늘과 땅 차이이다.

현재 검거된 22명중 18명에게 강제조치가 취해지고 4명이 치안처벌을 받았다.

/ 신화사

술 마신 후 차를 밀고 가면 음주운전인가?

6월 11일 21시경, 호북성 양양시민 뢰녀사는 길가에서 세 남자가 힘겹게 승용차 한대를 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준법 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에 누리군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럼 술을 마신 후 차를 밀고 가면 음주운전에 속하는가?

현지 교통경찰이 연도의 감시카메라를 조사해본 결과 웃통을 벗어제낀 세 남자가 소형 자동차 한대를 밀고 근 500메터나 되는 거리를 가다가 한 차수리부 근처에서 멈춘 것이 확인됐다.

감시카메라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찍혔다. 한 남자가 운전석 바깥쪽에서 핸들을 잡고 차를 밀고 다른 두 남자가 뒤에서 차를 밀었는데 아무도 운전석에 있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운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이 세 남자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 대신 차를 미는 방식을 취한 것은 음주운전의 주관적 고의가 없으며 차량이 운행 상태에 처해있는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바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여 비교통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동영상 속 차를 미는 행위는 자동차도로 및 자동차도로와 비자동차도로의 혼행도로에서 발생했기에 '도로를 점용하여 비교통활동에 종사한' 위법행위가 존재한다. 이런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 기타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만약 차를 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 또한 자동차 교통사고에 속한다.

/ 인민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중국인 류학생, 중국서 한국 다이어트약 팔다가 형사처벌!

최근 몇년간 해외 직구 및 구매 대행 열풍이 거세지면서 일부 중국인 류학생들이 학업중 틈틈이 부수입을 목적으로 SNS를 통해 해외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제를 판매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내포된 법적 리스크는 종종 간과되고 있다.

필자는 현재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류학생으로 한국의 변호사사무소에서 10여년간 다양한 실무연구 및 학술교류에 참여하면서 한국 다이어트약을 중국에서 판매했다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류학생 관련 사례를 여러건 접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있는 더 많은 중국인 류학생들이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소중한 류학의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한국 류학생, 다이어트약 구매 대행후 판매… 유해식품으로 판단돼 유죄 판정

—흑룡강성 흑하시 애휘구인민법원(2022) 흑 1102 형초 111호, 유해식품 제조·판매 사건

피고인 장씨는 한국에서 류학중인 중국 국적의 대학생으로 위챗 플래트홈을 통해 한국산 다이어트약을 판매했다. 판매 금액은 3만원을 넘었고 리익금은 약 5,500원에 달했다. 그녀는 중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책을 모집하여 해당 제품을 재판매하게 하기도 했다.

중국 공인 검정기관의 분석 결과 이 다이어트약에는 중국에서 명백히 금지된 화학성분인 마황알칼로이드(麻黄碱)가 포함되여있었다. 이는 흥분작용을 가진 물질로 장기간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 시 심혈관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2명의 피고인이 유해식품 판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씨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벌금 7만원을 선고하고 판매책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4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식품 판매 관련 활동이 전면 금지되였다.

불법의약품 무단 판매, 징역형 선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144조에 따르면 유해·유독 성분이 첨가된 식품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본 사건의 다이어트약은 비록 해외(한국)에서 생산되였지만 그 성분이 중국에서 불법일 경우, 출처 국가에서의 '합법성'은 중국내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되고 판매되는 순간, 중국 법이 전면 적용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재학중인 학생이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경감하였지만 집행유예 및 고액 벌금형은 그대로 선고되였다.

해외 구매 대행은 합법적 사업 아니다. 위챗 판매는 범죄이다!

많은 류학생과 구매 대행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팔 수 있으니까 나도 팔 수 있겠지.'

'다들 위챗에서 팔고 있으니 괜찮겠지.'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이다. 불법의약품, 승인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금지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어느 플래트홈을 통해서든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행정처벌(벌금) 수준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되며 형사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이나 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의 장씨처럼 중국인 한국 학생이 마황알칼로이드가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무단 수입후 위챗을 통해 중국내에 판매하고 하선을 통해 재판매까지 확장한 경우, 결국 형사처벌과 재산몰수, 판매금지 등의 중형이 내려졌다.

해외에서 살 수 있다고 해서 중국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챗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중국내에서 모든 식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사전 등록, 안전검사,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마황알칼로이드, 페놀프탈레인, 시부트라민 등이 포함된 제품은 절대 판매가 금지되여있다.

이러한 제품이 류통되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여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모든 류학생들에게 당부:

위챗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류학생들의 거래 내역, 메시지, 송금 기록은 전부 추적 가능하다.

"다른 사람도 한다."는 리유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개인의 '몰랐음'이나 '관행'을 리유로 면죄하지 않는다.

'한국 명약'이나 '일본 명약'이라 불리는 제품 뒤에는 법적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다.

한순간의 '쉬운 돈벌이'가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이 류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충동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한국 면허증만 소지한 채 고속도로서 후진했다가…

한국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오른 것도 모자라 고속도로에서 후진까지 하는 교통위법행위를 저지른 우씨 녀성이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교통경찰에게 붙잡혀 2가지 교통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치 못했다.

최근,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총대 고속도로길림지대지휘쎈터는 흰색 찌프차 한대가 고속도로 출구 진입로에서 후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때마침 료원시 동풍현 경내의 동매(东梅)수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찰 6대대 경찰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이 차를 막고 운전수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인 줄로만 알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이중 우환이 밝혀졌다. 운전자가 규정을 어기고 후진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도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질문에 운전자 우씨 녀성은 후회막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원래 그녀는 이날 통화시에서 차를 몰고 매하구시에 가서 일을 보고 통화시로 돌아가던 도중에 한눈을 팔다 보니 수금소를 지나쳤다. 그녀는 우회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직접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했다. 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우씨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꺼내보이며 중국 운전면허증을 바꿀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이였다.

교통경찰은 당장에서 우씨를 엄숙히 비평교육하고 나서 우리 나라 경내에서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으로부터 심사발급받은 유효한 중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바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고속도로 후진 시의 치명적인 위험, 즉 후방 차량이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추돌이나 련쇄충돌 등 악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도리를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결국 경찰은 법에 따라 우씨의 무면허 운전, 고속도로 후진 등 2가지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처벌을 내렸다.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다음과 같이 귀띔했다. 고속도로는 차량 운행 속도가 빠르고 차량 흐름이 밀집되여있기에 후진이나 역주행 등 위법행위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쉬우며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경외 운전면허증은 직접 경내 운전증빙으로 삼을 수 없는바 만약 국내에서 차를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당겨 중국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광범한 운전수들은 요행심리를 버리고 교통법규를 엄수하며 안전하고 문명하게 외출해야지 일시적인 편리로 큰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 유경봉기자

민정부 : 공익자선 분야 불법사회조직 전형사례 8건 공개

최근 민정부는 공익자선 분야 불법사회조직 전형사례 8건을 공개했다.

'중국자선련합회 동평봉사소', '장태구자선회', '중화자원봉사자협회 서포봉사소', '료녕 영구애심지원자협회', '포전시소비자협회', '동망자원봉사자 부릉봉사대', '양류조학기금회', '중국충성위사 응급구조중심 절강총대' 등 8개 불법사회조직이 등록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사회단체, 사회단체 부설기구, 대표기구, 기금회, 민영 비기업단위 등 명의로 활동했다.

상기 불법사회조직은 사회조직의 합법적인 등록 명칭을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사용함으로써 '국가' 명칭을 조작하여 대중의 신임을 사취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사건 관련 지역의 민정부문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상기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취소, 해산 명령을 내리고 관련 홈페지를 폐쇄하여 불량한 영향을 제거했다.

민정부 관련 사업일군에 의하면 일부 불법분자들은 공익자선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징을 리용하여 공익자선활동을 허울로 삼거나 스스로를 '합법사회조직'으로 포장하고 또 합법사회조직의 산하 기구로 사칭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불법 다단계판매 등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여 사회조직 등록 관리 질서를 파괴하고 더우기 공익자선사업의 발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민정부 관련 사업일군은 관련 기구와 사회 대중들에게 사회조직과의 합작을 전개하거나 공익자선 활동에 참여할 때 '중국 사회조직 정무봉사 플래트홈'(https://chinanpo.mca.gov.cn), '자선 중국'(https://cszg.mca.gov.cn) 등 플래트홈에서 관련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현지 민정부문에 제보해야 한다.

/ 신화사